

中高等學校 國語教育課程 構成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金 炳 國*

序 言

이 글은, 현행 中·高等學校 國語教科書의 改編을 전제로 할 때 제기 될 수 있는 國語教育課程 구성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 봄으로써, 教科書 改編의 어떤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¹⁾

오늘날 사용되는 醫藥品の 9할은 현재의 고참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다닐 무렵에는 발명조차 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니, 우리는 나날이 새롭게 그리고 급격하게 발전·증가하는 知識의 質과 量을 감당하기 어려운 知識의 飽和狀態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국어 교육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텔레비전을 위시한 기타 大量傳達媒體들의 영향만으로서도, 오늘날 국민학교 입학 적령기 아동들이 습득하고 있는 知識이나,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語彙의 質과 量은 우리들의 그 때에 비해 놀라우리만치 향상되었으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 국민학교 입학 적령기 아동의 語彙驅使力은 그가 입학해서 1학년 내내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語彙數에 비하여 엄청나게 풍부할 것임에 반하여, 각급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語彙數는 해당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것에 비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은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量的

* 人文大 助教授(國文學 專攻)

1) 이 글은, 韓國教育開發院주최, “學校教育制度 및 教育課程 發展方向 探索을 위한 세미나”(1980. 10. 31~11. 1)에서, 필자가 主題發表한 “國語教科의 役割과 內容改善의 方向”을 토대로 구체화한 것임.

으로도 가뜩이나 빈약한(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서는 더더구나 그렇다) 國語教科書가 그 제한된 틀 속에서나마 정말 유효·적절한 題材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현행 중·고등학교 國語教科書를 심각하게 다루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필자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국어 교과서의 거의 대반의 題材들이 言語教育資料로서는 부적절하거나, 아예 국어 교과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교과(즉, 道德이나 國史나 地理 또는 科學)에 속하는 題材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²⁾. 사실 우리는, 과거 국어 국문학계 원로들이 펴냈던 ‘國語國文學精華’類의 讀本들을 그냥 교과서로 사용한다면, 어떤 든 읽을 만한 거리가 있다는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듣는다. 요컨대, 현행 교과서는 학생들에게는 읽을 거리를, 국어 教師라는 전문인에게는 가르칠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一般目標가 國語教科 高유의 領域에 관하여 명확한 한계를 지어주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國語教科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부터 대학 1학년에 이르기까지 13학년 동안 계속되는(單位 授業時間數도 가장 많은) 人文學 教科 중 가장 중요한 教科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는 언제나 당면한 문제를 교육에 당장 직접 반영시키려 함으로써, 만일 國語教育의 本質이 규명되고 그 고유한 領域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국어 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 과정에 속하는 내용들이 國語教科를 침범해 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사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환경이 國語나 國語文化와 관련 안된 것이 없기 때문에, 國語教科의 고유한 領域을 확실히 정해 두지 않은 지금의 실정으로서서는, 오늘날의 國語教師

2) 이와 같은 지적은 누차 있어 왔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글들: 李大揆, “國語教育 內容의 選定”, 「새 교육」, 1975. 11.; “語文系列의 內容選定과 組織原理”, 「教育課程 構成 原理」(韓國教育開發院, 1978).

는 國語教科의 固有領域이 아닌 다른 教科의 目的이나 目標의 실현을 위해, 다른 教科의 教師들이 저야 할 짐의 일부까지도 더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現行 中·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그 내용이 國語教科의 固有領域에 따라 改편되어야 할 것이 當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進行될 이 글의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차례로 논의될 것이다.

- (1) 現行 國語教育課程에서 그 一般目標은 타당하게 進술되고 있는가.
- (2) 國語教科의 本質은 무엇이며, 國語教育의 目標은 어떻게 進술되어야 하는가.
- (3) 國語教科의 內容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內容의 選定基準은 무엇인가.
- (4) 學年次 位階에 따른 漸層的 連續性을 유지할 수 있는 內容組織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模型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에 관한 어떤 方向을 시사하는 데 그치는 것임을 밝혀 둔다.

I. 現行 國語教育課程 一般目標

현재 국어 교육 과정 일반 목표가 국어 교과서의 본질에 입각하여 타당하게 進술되고 있는가 검토하는 일로부터 本론을 시작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現行 국어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가 되는 그 일반 목표의 進술 내용에는 국어 교과서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다. 中·고등학교 국어과 일반 목표 4개항을 들어 그 進술 방식 및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중학교 국어과 목표를 主文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그것은 달리 표현된 부분(밑줄 친 부분)만을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한 것이다.

1. 일상 생활(교양 있는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을 신장하고(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인(효과적이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영위하게) 한다.
2.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더욱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발견,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발전하는 사회에 적용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게(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 발전에 적용하며 나아가 이를 선도하는 데 참여하게) 한다.
3. 국어를 통하여, 바르게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힘과(사고력, 판단력 및 창의력을 함양하고),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길러서,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진실한 국민(중견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4. 국어 존중의 뜻을 높이고,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게)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기여하게) 한다.³⁾

그런데, 위와 같은 국어 교육 목표의 진술 방식은 “모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것을 이룩하게 한다.’와 같이 ‘수단과 목적’의 구조로 짜여 있으며, 그 구성 요소들이 하나같이 중요하다”⁴⁾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진술들을 ‘수단’과 ‘목적’의 구조가 드러나도록 다음과 같

구 항	수 단	목 적
1	① 국어사용의 기능 ② 성실한 태도	① 효과적인 (㉠ 품위있는) } 언어생활
2 ↓ (3)	① 지식과 경험 ② 문제 해결력(및 발전력)	① 개인의 자립 ② 사회에의 적용(및 사회의 선도)
3 ↓ (2)	① 사고력, 판단력(및 창의력) ②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	①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 ② 진실한 (중견)국민
4	① 국 어 ② 국어로 표현된 문화	① 민족 문화 발전

※ ()는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충한 것임.

- 3)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서울: 삼문출판사, 1973), p. 29;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서울: 교학도서주식회사, 1974), p. 21.
- 4)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p. 9.

이 도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의 표에 따라 먼저 '수단' 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 보자. 가령 1-① "국어 사용의 기능"이 국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국어 사용의 기능은 국어 교육이 달성해야 할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지식과 경험"(2-①)을 넓히고 "문제 해결력"(2-②)을 기르는 것이 국어 교육의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령, 모든 지식이나 간접 경험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언어 자료를 통해(수단)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자(목적)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고력, 판단력"(3-①)은 국어 교육의 한 '목적'일지언정 그 '수단'은 아니다. 예를 들어, '思考는 言語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言語 곧 思考'라고 하는 命題에 따라, 우리는 "사고력"을 어느 다른 教科에서보다도 國語教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그것이 국어 교육의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수단은 어디까지나 국어 자료들이지 思考力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수단과 목적 사이의 개념 혼란은 위의 도표 1-②와 3-②에 이르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가령, 1-② "성실한 태도"는 국어 교육의 목표 중 '수단'이 되는 요소라기보다, 차라리 道德 교육의 목표 중의 어떤 요소가 아닌지 모르겠다. 또 2-②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은, 가령 文學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국어 교육의 목적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직접 국어 교육의 수단은 될 수가 없다. 그 구체적인 수단은 어디까지나 문학 작품이면 '文學作品이라는 國語資料'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에는 위의 도표 '목적' 난의 구성 요소들을 보기로 하자. 한 마디로 말한다면,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 "진실한 국민",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 등의 개념은 다른 모든 教科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이지 國語教科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어 교육만을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과학·역사·사회...등을 배우며,

학교도 국어 교과만이 아니라 문교부 교육 과정에 포함된 모든 敎科와 活動을 다룬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국어 교과가 전체 교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일 각 교과의 목표 진술이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각 교과의 목표 진술은 모두 同意語反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健康’이나 ‘職業訓練’이나 ‘餘暇善用’ 등의 매우 실제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自我實現’, ‘國家發展’, 및 ‘民主的 價値’ 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물론 국어 교사는 이러한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교과의 교사가 수행할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이 글 ‘II’에서 논의하고자 하나, 그것은 다른 교과의 교사가 협동하여 보완할 수는 있더라도 어느 교과의 교사로서는 결코 실현시킬 수가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앞서 열거한 中高等學校 國語敎科 一般目標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階層性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검토해 보자. 제 I항을 보면, 먼저 “일상 생활에 필요한(中)”이 “교양 있는 생활에 필요한(高)”으로 代置되고 있어서, ‘日常’과 ‘敎養’이 중·고등학교의 位階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그 뒤의 “효과적인 언어 생활(中)”을 “효과적이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高)”로 달리 표현함으로써, 高校의 경우 ‘敎養’의 개념에서 도출된 “품위”라는 요소를 더 넣었으니, 일단 중·고등학교 간의 계층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1항에서, “국어 사용의 기능을 신장하고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中)”와 “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高)”라는 표현

5) Cf. Robert Ulich, *The Education of Nations: A Comparison in Historical Perspectiv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 243. 1918년 美國 文敎當局에서 설정한 主要目標(Cardinal Principles)는 다음 7가지다. ① health, ② command of fundamental processes, ③ worthy home membership, ④ vocational training, ⑤ citizenship, ⑥ worthy use of leisure, ⑦ ethical character.

6) 문교부, 국어 교육과정 “총론”중, ‘일반 목표’항, 참조.

사이의 階層的 差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즉, 국어 사용의 기능을 '신장하는 일(中)' 과 '기르는 일(高)' 사이에는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말바꿈의 차이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바꿈의 예는 1항 結句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한 것 같다. 즉,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中)"와 "~영위하게 한다(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단순한 言語遊戲 이상의 것이 못된다. 이러한 예는 일반 목표 후속항들에서도 두드러진 경향이 되고 있다. 예컨대, 2항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中)"와 "~더욱 넓히고(高)", 4항의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中)"와 "~기여하게 한다(高)" 등이다.

끝으로, 국어 교육의 일반 목표가 중·고등학교 간의 階層性을 드러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봐서 同意語反復을 면치 못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해야 되겠다. 그 원인 중의 첫째는 도대체 각급 학교 국어 교육 일반목표의 共通分母가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 같다. 현행 문교부령 교육 과정을 보면 그 "총론"에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각론" 중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일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국민·중·고등 학교 별로 그 일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선 각급 학교 국어 교육 목표의 共通分母가 되는, 名實이 共한, 국어 교육 '일반 목표'가 먼저 想定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 같다. 우리는 이 共通分母 위에다가 각급 학교의 성격 규정에 따른 階層性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 共通分母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다음 'II'에서 해야 할 일이다.

II. 國語教育의 本質과 目標

國語敎科 固有의 領域을 확정하고 그 目標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교과와 내용 및 목표와 관련된 국어 교육의 이론들을 살펴 보

아야 한다. 국어 교육 과정 구성의 원리가 되는 이론으로서는 대략,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言語技能을 중심 과제로 한 意思疏通理論, 국어 교육의 領域區分을 중심으로 한 三分法的 理論, 言語의 諸技能 및 領域을 포괄하고자 하는 일종의 ‘統一場’의 理論 등이 있다.”⁷⁾ 그러면, 이상 국어 교육 이론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정을 살피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意思疏通 理論이다. 의사 소통은 傳達과 傳受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다시 傳達面으로서의 ‘말하기·쓰기’와 傳受面으로서의 ‘듣기·읽기’로 나누어지며, 그리고 이것은 달리 口演活動으로서의 ‘말하기·듣기’와 文字活動으로서의 ‘읽기·쓰기’로 나누어지는데, 요컨대 국어 교과는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4가지 言語技能(language arts and skill)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四分法的 理論이 우리가 실제 학습 현장에서 각 부분을 반드시 균등하게 강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령 ‘읽기’는 읽기 그 자체와 함께 讀法을 포함하여 文學 공부라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읽기’의 국어에 전 교육 시간의 반 이상을 傾注하게 되는 것이다. 또, ‘쓰기’와 ‘말하기’에는 분명히 語學的 연구가 포함되기 마련이며, 이 경우에도 ‘쓰기’의 수련은 ‘말하기’의 수련보다 국어 학습에서 월등한 量의 시간을 요하는 영역이다. 흔히 국어 교과에서 作文 教育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문교부 제정 國語教育課程을 보면 그것이 意思疏通 理論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간의 輕重이 배려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指導事項만을 본다면, 어떤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同意語反復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가령, “성실한 태도”라는 지도 목표의 하위 구분은 ‘성실한 태도로

7) Cf. J.N. Hook, *The Teaching of High School English*(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65), pp. 6ff.

말하기', '성실한 태도로 듣기', '성실한 태도로 읽기', '성실한 태도로 쓰기'). 또, 그런가 하면 실제 교과서의 내용은 오로지 '읽기'만을 위한 제재들 일색인 것같이도 보이고, 실상 교실 수업은 '읽기' 교육만으로 실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 국어 교육의 領域 구분을 중심으로 한 三分法的 理論인데, 국어 교육은 言語(language), 作文(composition), 文學(literature)의 세 영역이 그 교육 과정의 核心分野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英語教育의 內容領域을 구분할 때, 대체로는 言語教育, 文學教育, 作文教育의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 三分法的 概念은 國語도 다른 教科 즉 歷史나 社會나 科學처럼 어떤 知識의 體系로서의 해당 學問을 대표하는 教科라는 생각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言語教育은 실제의 意思疏通 技能에 적극 작용하는 현재 살아있는 言語가 중심 과제이고, 文學教育은 '읽기'라는 개념을 포괄하며, 作文教育은 口演(oral) 및 文字(written)活動을 포괄하는 '作法(rhetoric)'의 개념일 수 있으니, 이상 意思疏通 技能 理論과 함께 相互補充的인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三分法的 概念은 國語教科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직하고자 할 때, 그 영역을 한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교부령 국어 교육 과정에 국어 교육의 영역 구분을 확실히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예로 든다면, 必須 集中課程인 '국어 I'의 내용이 대체로는 言語教育分野와 文學教育分野의 題材들로 兩分되면서도, 作文教育分野의 題材들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다만 '공부할 문제' 중에 막연한 글짓기 문제가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종의 選擇課程인 國語文法이 檢認定教科書로 독립되어 있고, 또 人文系를 위한 교육 과정 '국어 II'에 따라 古典과 作文이 각각 독립된 점인정 교과서로 되어 있어서, 이 경우, 예의 三分法的 領域概念이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⁸⁾ 그러나 作文 교과서의 경우, 口演活動(oral

composition)의 면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 과정 구성의 원리가 意思疏通 技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으로서만 보아도 모순된 일이라 생각된다. 또, 古典 교과서의 경우는 이른바 原典讀破라는 원칙 때문에, 그것이 文學的 理解를 위한 讀本이라기보다 語學的 解釋을 위한 讀本이라 해야 마땅할지도 모른다.⁹⁾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어 II'의 교육 과정 중 古典教科는 文學教育教科로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교과서는 古典 및 現代文學을 포괄하는 방대하고도 광범위한 '文學 및 읽기'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세계, 국어 교육의 '統一場(unified field)'의 理論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統一場'의 개념은 物理學에서 電·磁氣·重力을 포괄하는 力學原理인데, 국어 교육도 그 각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統一의 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理論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가 이들을 포괄하는 통일된 힘으로서의 共通分母를 통해 가장 잘 연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共通分母가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그것이 '言語 및 修辭法'이라고 보는 측과 '文學'이라고 보는 측간의 見解差가 있다. 즉, 言語 및 修辭法이 국어 교육의 중심이라고 보는 쪽은 言語(國語)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주장하므로, '쓰기(writing)'를 주로 言語學的 觀點에서 취급하며, 文學 공부도 주로 작가가 사용한 言語의 用法이나 修辭의 用法과 관련시킨다. 반면에, 文學이 국어 교육의 중심이라고 보는 쪽은 '쓰기'를 주로 文學的 觀點에서 취급하며, 학생들은 넓고 깊은 讀書에 의해 자신의 言語技能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言語學者들이 文學을 除外하지 않으며, 文學研究者들이 言語 및 修辭法의 研究를 度外視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8) 즉, 言語教育=文法, 作文教育=作文, 文學教育=古典讀本(國文學史 포함).

9) 이 점은, 대방 이후 지금까지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이들은 國語學者(좁게는 文法學者)라는 통념이 있어 왔고, 또 국어 학습은 言語分析에 치중해 온 결과, 국어 교육은 곧 語學教育인 듯이 되어버린 경향과 함께 再考되어야 한다.

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근래의 추세는 構造言語學이나 變形生成文法 등 言語學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文學研究에 있어서도 構造主義나 記號學이니의 이론들이 최근의 主流를 이루고자 하는만큼, 言語學的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된 國語教育理論의 가능성이 보다더 提高될 것임을 말해 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이 방면의 지식의 축적이 당장 새로 개편될 것이 예상되는 國語教育課程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 교과의 영역 확정과 목표 설정을 위해 그 기초가 될 국어 교육 이론들을 살펴 본 셈이다. 그런데 이들 이론들 간의 차이란 그것이 本質的인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強調點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중 그 어느것으로서도 국어 교육 과정의 기초를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意思疏通理論은 口語 및 文語 內容이 傳達·傳受되는 相互關聯性을 특히 강조하지만, 文學을 포괄한다. 다음, 三分法的 理論은 文學과 作文과 言語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말하기’와 ‘듣기’를 전혀 度外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소홀히 할 뿐이다. 끝으로, 統一場의 理論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공부가 이들의 共通分母인 言語 및 修辭法을 통해, 또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본보기인 文學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이론들에서 강조된 점들을 전부 포괄하는 각도에서 國語教科의 本質, 즉 국어 교과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인가 규명해야 되겠다. 아래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보기¹⁰⁾를 들어, 국어 교과의 본질적인 성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무엇(Know-what)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인가? 대체로 言語와 文學과

10) Cf. Carl A. Lefevre, *Linguistics, English, and the Language Art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0), pp.11-15.

作文을 그 집중 課程으로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이다.

(2) 어떻게(Know-how)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인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이다.

(3) 왜(Know-why)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인가?

인간은 知性和 感性의 소유자이므로 그 언어 또한 認識的인 측면과 感情的인 측면이 있으니, 概念的 思考力과 客觀的 判斷力(認識的 측면), 審美的 感受性과 創造的 體驗(感情的 측면)등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결론에 이르러야 될 것 같다. 그것은 국어 교육의 목표 진술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국어 교육의 목표 진술은 그로부터 적어도 위에 제시한 (1)~(3)의 사항들, 즉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가가 추출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言語(國語)의 本質을 이해시킴으로써, 첫째 인간의 個人生活이나 社會生活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言語의 文化的 意義를 인식시키는 일이고, 둘째 言語가 지닌 실제 生活道具로서의 意義를 인식시킴으로써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言語疏通 技能을 원할히 하게 하는 일이며, 셋째 言語를 통해 이룩된 人間精神의 最高 結晶體로서의 文學의 體系를 인식시킴으로써 이의 鑑賞力 및 創作力을 개발하는 일이다. 끝으로, 국어 교육 목표 진술의 한 보기를 들어 목표 설정의 방향을 示唆하고자 한다.

어떤 이는 무엇이 중·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¹¹⁾ 그 요점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11) Frances Erickson, "What Are We Trying to Do in High School English?" in Dwight L. Burton and John S. Simmons, eds., *Teaching English in Today's High School: Selected Readings*(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pp. 16-24.

- (2) 그 생각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 (3) 문학 작품에의 共感을 통해 情緒的 感受性 및 美的 敏感性 개발하기.
- (4) 言語資料들을 發見, 利用, 評價하는 獨自性 개발하기.
- (5) 言語의 意義와 言語 使用의 責任性 인식하기.

이상 5개항은 차례로 (1) 思考力, (2) 意思疏通 技能, (3) 情緒的 感受性, (4) 實生活에의 適應力, (5) 社會的 責任 등이 강조된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國語教科의 범위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國語教科의 內容選定 基準

국어 교육의 목표가 前項에서 논의한 바 어떤 方向으로 확정되면, 이제 그 교과 내용의 細部를 조직해야 한다. 그것은 먼저 국어 교육의 領域에 따라 그 下位領域을 분명히 하고, 그 下位領域들은 다시 각기 細部領域으로 나누어지면서, 각 細部領域에 들어갈 구체적인 國語資料들 즉 題材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그러면, 국어 교육의 각 영역에 따라 그 내용 선정의 일반 기준을 찾아 보기로 하자.

1. 言語教育 分野

言語學의 基本概念으로부터 국어 正書法, 국어 文法, 國語史 등이 포괄되는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어떤 분야의 것이든, 선정되는 내용은 현재 살아있는 日常言語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活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래 언어 교육은 文章이란 무엇인가, 主語란 무엇인가 등 定義 내리기나, 단어 및 구절 들의 品詞나 成分의 名稱 확인하기 등이 그 목적인 듯이 실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덮어놓고 앵무새가 하듯 교과서의 定義들을 외우거나 단어마다 찾아가면서 그 品詞나 成分의 이름 붙여 주느라 고역을 치루었다. 가령, 主語·敘述語·目的語 등 根幹要素가 되는 基本成分만 갖추면 하나의 완

전한 문장이 성립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를테면 “그대는(주어) 감사할(수식어) 줄을(목적어) 모른다(서술어).”라는 문장에서, 修飾成分 “감사할”을 뺀 “그대는 줄을 모른다.”를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일 이와 같이 語學的 또는 文法的 지식은 지식으로만 남을 뿐 실제 언어를 설명해 주지 못할 때에는, 언어 교육은 학생들이 단지 用語의 定義나 외우고 단어의 文法的 名稱이나 붙이는 따위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의 언어적 접근을 위해서는, 첫째 언어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둘째 실제 언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文法體系를 選定·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는 “(1) 意味 및 意思疏通에 관련되는 하나의 作爲의 制度이며, (2) 個人 및 社會에 공하는 文化的 寶庫이고 또 그 反映이다.”¹²⁾ 언어는 애초부터 인간만의 所有物이었으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수정된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 의미를 붙이고 붙여진 의미에 의해 의사를 전달하며 또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한다. 따라서 국어 교사는 이미 만들어진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 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만들어 내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語學的 概念의 定義나 文法的 用語의 確認이 아니라, 單語나 句節을 실제로 操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 이 ‘道具로서의 言語’ 개념에 입각한 언어 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意味에 직면하여, 그것을 표현하고자 말을 모으고 고르는 作文教育 分野와 直結된다. 다음, ‘文化로서의 言語’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언어가 단지 의사 전달을 위한 符號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축적하여 온 일종의 記憶裝置임을 의미한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言語教育은 文學教育과도 直結된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고 만들어 온 인간이

12) Priscilla Tyler, “New Concepts and Content for the English Curriculum,” in *Ibid.*, p. 171.

아로세겨진 文化的 體系物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時代와 場所와 國籍에 의해서 言語의 體系를 세우기 마련이니, 國語史는 言語教育 분야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古語資料의 選定 문제가 있다. 이것은 文學史 및 國語史의 영역에 드는 것이겠는데, 결론만을 말한다면, 文學教育을 위한 古語資料는 지나친 原典主義를 탈피해야(번역 또는 상세한 주석에 의해) 할 것이고, 言語教育을 위한 古語資料는 그것이 현재의 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현대 국어의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흔히, 古語의 分析活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資料分析 能力을 키워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국어와 無關한 가령 古語만의 복잡한 音韻分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言語教育의 優先目的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도대체 國語教科가 오늘날 그렇게도 지루하고 난해하며 현실과도 동떨어진 教科가 되게 한 원인의 얼마까지는 이러한 梗塞된 古語教育觀이 저야 할 지도 모른다.

끝으로, 言語教育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文法理論들을 援用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文法理論은 대체로 傳統的인 規範文法, 構造主義 言語學, 變形生成文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개의 경우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語學的 概念이나 文法用語는 거의 傳統的 規範文法에 의한 것이다. 構造主義 言語學에서는 口語로서의 언어를 일차적인 것으로 강조하며, 文語로서의 언어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룬다. 變形文法에서는 모든 문장이 몇 개의 기본·핵심적인 문장으로부터 變形·生成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이나 용어 위에 구조주의자들의 音素學的 理論이나 變形論者들의 基本文型 理論 등을 援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도 활용될 수 있는 國語教科의 言語教育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文學 및 읽기 敎育 分野

文學敎育은 문학 작품 자체의 읽기 敎育과, 文學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批評敎育의 兩面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表裏의 관계에 있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資料의 選定에 앞서는 配分 原則이 문제가 된다. 첫째, 古典作品과 現代作品의 配分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단 古典的이라고 인정되는 작품을 위주로 하되, 同時代의 현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주어진 部類를 위하여 특별히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구태어 그것을 제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두기로 하자. 配分上의 둘째 문제는 모든 자료가 문학 작품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잘 쓰여진 非文學的 散文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세째는 文學의 중심 장르인 詩·小說·戯曲·隨筆 사이의 配分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일단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세워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즉, 文學敎育의 읽기 자료는 먼저 文學의 중심 장르인 詩·小說·戯曲·隨筆 등을 망라하여야 하고, 다음, 文學敎育의 개념은 광범위한 읽기 敎育을 포괄하므로, 기타 純粹散文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읽기 자료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文學의 構造的 基本原理는 多樣한 形式과 頻發하는 主題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前提 아래, 가령 다음과 같은 4가지 構造的 基層을 資料選定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1) 人間이 그 對象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基本關係로부터 전개된 主題들(Themes) : 人間과 神格, 人間과 他人, 人間과 自然, 人間과 그 自身.
- (2) 人間 想像力의 基本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原初의 樣式들(Modes) : 傳奇的인 것(romantic), 喜劇的인 것(comic), 悲劇的인 것(tragic), 諷刺的인 것(ironic or satiric).
- (3) 現代 想像文學의 기본 장르들(Genres) : 長·短篇小說, 詩, 戯曲.
- (4) 기타 個別的인 精選物.

“文學 읽기의 학습은 이러한 構造的 基層의 인식을 의미하며 文學 읽

기 技能을 가르치는 일은 모두 이와 같은 보편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文學 및 읽기 教育 分野의 내용 선정은 이러한 構造的 基層을 전부 망라한 씨와 날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¹³⁾

다음, 文學의 構造的 基層을 망라함과 동시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文學教育의 接近方法과 學習目的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도 실용적인 題材選定 方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 (1) 歷史的 接近: 作家 및 作品背景을 강조함이 목적인 제재들.
- (2) 社會心理學的 接近: 文學의 社會的 心理的 局面을 강조함이 목적인 제재들.
- (3) 情緒的 接近: 文學에 內在하고 있는 美意識과 즐거움을 강조함이 목적인 제재들.
- (4) 教訓的 接近: 作家의 意圖 및 作品의 道德的 含意를 강조함이 목적인 제재들.
- (5) 內容把握的 接近: 作家가 말한 내용의 要約的 把握이 목적인 제재들.
- (6) 分析的 接近: 해당 작품 특유의 文學的 特徵을 추구함이 목적인 제재들.¹⁴⁾

문학 작품들이 '읽기'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들이므로, 이상과 같이 다양한 學習의 接近方法을 고려하여 제재들을 선정한다면, 실제 학습 활동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3. 作文教育 分野

作文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貴族教育의 教育課程이었다. 西洋의 경우 作法(rhetoric)은 古代로부터 近代 君主國家에 이르기까지 이를테면 王子를 위한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옛날 科擧시험은 주로 作詩法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었다. 이 직까지도 우리는 識者와 無識者의 판별 기준을 글을 읽고 쓸 줄 아느냐의 여부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作文教育이 國語教科 三大領域 중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自明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13) Dwight L. Burton, "Teaching Students to Read Imaginative Literature," in D.L. Burton & J.S. Simmons, eds., *op. cit.*, p.114, *passim*.

14) J.N. Hook, *op. cit.*, p.17.

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어 학습의 演行 실태는 이를 거의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作文은 다른 어느 教科課程(course)보다도 더 단계적이고도 계속적인 학습과 수련을 거쳐야 도달될 수 있는 課程이다. 다음에 作文教育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일반 원칙을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 作文의 개념에는 지식과 의견과 정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 試圖되는 모든 口演表出과 文字表出을 포괄하므로, ‘쓰기’는 물론 ‘말하기’ ‘듣기’의 技能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분야다. 즉, 이것은 쓰기(writing)와 짓기(composition)와 修辭法(rhetoric은 원래 話術을 의미하였으므로 口演的 表出을 포괄한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 선택 교과로서 작문 교과서를 갖고 있으나, 그것이 口演表出의 면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쓰기’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를 동시에 演行할 수 있는 그런 作文課程을 구성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작문 교육에 대한 종래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현행 중·고등학교 作文教育은 그 옛날 ‘作詩法’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아직도 버젓이 作文教材에 “시란 어떻게 쓰는가” “희곡을 쓰는 요령” 따위에 준하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뿐이다. 적어도 중·고등학교의 작문은 ‘說明的 진술의 수련을 위한 作文(expository writing)’이어야 하고, ‘創作 作文(creative writing)’은 관심 있는 학교에서 특별히 선택 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작문 교육은 이제 “~을 주제(소재)로 한 편의 글(시, 소설, 희곡)을 써(지어) 보자.”는 식의 作文觀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文學 및 읽기 교육 분야가 국어 교과 중 중요한 ‘內容 教科’ 라면, 작문 교육 분야는 보다 더 ‘方法 教科’에 가깝다. 그러니, 作文教科의 내용 구성은 보다 더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른바 ‘微視的 構造(micro-structural rhetoric)’와 ‘巨

視的 構造(macro-structural rhetoric)'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微視的 構造로서의 作文觀은 문장(sentence) 또는 대문(paragraph)의 조직 및 표현 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巨視的 構造로서의 作文觀은 한 편의 글이나 책이나 소설 등 보다 큰 한 單位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作文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巨視的 構造만으로서의 作文觀에서 크게는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세째, 우리의 실정으로는 微視的 觀點에 의거한 作文의 構造 및 文體 개념을 적극적으로 개발·응용함으로써 作文이 知識 교과가 아니라 修練 교과임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作文에 관한 한, 우리들은 아직까지 '構造'의 개념을 서두와 중간과 결말의 유기적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文體'의 의미를 간결체니 만연체니 화려체니 강건체니 등 고전적 修辭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微視的 構造로서의 作文觀은 다음과 같다. 각 문장은 전체 대문에 기여하고 각 대문은 한 편의 글이라는 단위체에 기여하며, 각 단어 및 구절이나 비유적 표현 등은 동일한 하나의 목적에 봉사한다는 생각이 우선한다. 正書法을 가르치는 이유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착오가 정확한 전달 내용을 방해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문장 형식 중에서 몇 개만이 특정한 전달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가르치며, 어떤 문장 구조나 어떤 단어들이 특정한 전달 목적에 가장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文體(style)를 가르친다.

IV. 內容組織의 階層性과 連續性 問題

讀本 教材인 고등학교 國定教科書를 보면 文學史 영역의 읽기 資料로 "국문학의 발달"이라는 單元이 있다. 그 '국문학의 발달(1)'은 上古로부터 高麗朝까지를, (2)는 朝鮮朝 時代를, (3)은 新文學期 以後 現代文學期를 망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각각 순서대로 1, 2, 3학년 교과서

에 배분되어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생能力的 學年次 發達段階를 무시하고 있다기보다 아예 逆行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現代語 表記로 고쳤다고는 하나 그 解讀과 內容 파악에 문제가 있는 鄉歌나 高麗歌謠가 1학년 교과서에, 어엿한 現代作品은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은 학생 국어 능력 발달상의 階層性과 連續性을 그리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독본 교재의 편찬 방침들이 어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작품의 年代紀的 配分이라는 고착 관념에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아울러 文學教育에서 만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극히 소박한 일종의 歷史主義는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으로부터 대학 1학년까지 13학년에 걸쳐 漸層的이면서도 지속적인 국어 교육 과정 수립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또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후우크(J.N. Hook)는 다음 9가지를 들어 논의하고 있는데¹⁵⁾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1) 국어 교과서의 영역 확정, (2) 각급 학생에게 기대되는 평균 수준 想定, (3) 유용한 항목들의 級別 배치, (4) 지속적인 ‘쓰기’ 프로그램 작성, (5) ‘읽기’ 修練 指針의 級別 배치, (6) 광범위한 文學 프로그램 작성, (7) 復習의 기회 반영, (8) 평균 수준을 중심으로 한 濃度 짙은 내용(優秀學生을 위한)과 濃度 얇은 내용(遲進學生을 위한)의 同時 按配, (9) 螺旋狀 圓錐形(spiral cone)教育課程 개념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특히 螺旋形 教育課程¹⁶⁾의 개념은 소위 벽돌 쌓기식 교육 과정 개념에 비하여 훨씬 교육 과정 수립자에게 유용한 개념이다. 螺旋은

15) Cf. J.N. Hook, "If a Curriculum Is to Be Sequential," in D.L. Burton & J.S. Simmons, eds., *op.cit.*, pp. 449-458.

16) 소위 "spiral curriculum"은 Jerome Bruner가 *The Process of Education* (1960)에서 주창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것은 아무리 어린 학생에게일지라도 기본 원리만은 망라하여 가르칠 수가 있다는 생각과, 下位段階에서 시작된 내용은 上位段階에서 같은 내용으로 되돌아오되, 두터워지면서 上昇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螺旋에 類推된 개념이다.

동일한 바닥을 반복하여 밟으면서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 성공한다. 그에 의하면, 螺狀圓錐形의 尖端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한 달팽이 모양을 想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心像은 다음과 같은 教育課程 構成上의 3가지 원리를 상기시켜 준다고 한다. 즉, ① 많은 반복과 복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똑 같은 말, 똑 같은 맥락, 똑 같은 방법이 아닐 것, ② 各學年의 공부는 前學年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할 것, ③ 망라되는 내용은 每年 擴充되어야 할 것(즉, 그 이전에 가르치지 않은 資料와 技能과 概念이 들어가야 함)등이다.¹⁷⁾

이상과 같은 교육 과정 구성상의 계층적 연속성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 국어 교육 과정이 “각급 교육 정도에 따르는 유의적 선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¹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학교의 지도 사항과 중학교의 지도 사항,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지도 사항, 또는 각 학년 사이의 지도 사항에서는 그 중점을 두는 바가 각기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일 국민학교 국어 교과에서의 쓰기와 고등학교에서의 그것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적 선택을 포기하고 있는 증거라 할 만하다.”¹⁹⁾ 그러면 아래에 作文教育을 예로 들어, 계층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한 보기를 들고자 한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年次別로 配分되어야 할 作文 形式 및 題材를 망라한 것이다.

7年次: 개인 체험에 관한 親書; 간단한 謝禮狀; 叙事 대문(段落); 간단한 說明 대문; 事典類에 의거한 간략한 報告文; 書冊 전체에 관한 讀書報告가 아니라 그 중 특정 挿話에 관한 再陳述이나 특정 人物에 관한 反應, 또는 그 결과에 대한 評價 등의 간략한 作文.

8年次: 復習; 描寫 대문; 叙事 대문; 說明 대문; 몇 종류의 商用 書簡; 親書;

17) Cf. J.N. Hook, "If a Currieulum Is to Be Sequential," in D.L. Burton S J.S. Simmons, eds., *op.cit.*, pp. 457f.

18) 19) 韓啓傳, "文學教育과 修辭學",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서울 師大 國語教育科, 1976), p. 509.

報告文; 자유로운 형식의 讀書報告; 個人的 興味를 題材로 한 글짓기.

9年次: 復習; 例示, 挿話, 推論, 比較, 對照 등에 의해 전개되는 說明 대문; 感覺印象이나 持續的인 視點에 역점을 둔 描寫 대문; 試驗答案文; 250~300 단어짜리 課題作文.

10年次: 復習; 하나의 說明的 課題作文에 관한 다양한 전개 방식; 論證의 說得的 대문 쓰기에 이은 보다 긴 論證의 課題作文; 序頭 쓰기 요령과 실천; 引用文 쓰기; 個人的 색채 加味하기; 관련 題材 및 文學에 관한 報告書; 試驗答案文 쓰기 練習 강화; 文學作品 내용 要約; 比較讀書.

11年次: 復習; 要約文; 500~800 단어짜리 輕隨筆; 1,000~2,000단어짜리 참고 논문; 확장된 定義; 試驗答案文 쓰기 加重 練習; 讀後感 쓰기 강화.

12年次: 復習; 因果關係에 의한 說明的 논문; 見解 力의 隨筆; 文學作品에 나타난 思想分析 등의 課題作文; 서적, 연극, T.V. 프로그램, 연주회 등에 관한 批評; 장편의 참고 논문.²⁰⁾

끝으로, “읽기”자료 선정 기준의 한 一般原則으로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국어 읽기 자료들은 그 속에 담긴 내용 즉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곧 지식이 조직되고 있는 體系를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一例로, ‘弔針文’이라는 글은 “옛 여인의 가슴 속에 깃들인 다정 다감한 정서와,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여성 특유의 인정미”가 아니라, ‘弔文’ 또는 ‘弔辭’라는 양식의 글이 지닌 慣習的 體系를 알고자 선정된 글이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 글을 통하여 “옛 여인의 다정 다감한 정서”나 “여성 특유의 인정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戲畫的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歷史나 地理 教科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을 위한 ‘內容教科’라 한다면, 國語教科는 보다 ‘方法教科’에 가까운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국어 자료를 그 속에 담긴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국어 교사들은 자신이 百科辭典이 되지 못함을 한탄해 왔다. 또 이런 그릇된 생각에서 제재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의 상당한 분량이 우리 국어 교사들로서는 도대체

20) Cf. Clarence W. Hach, “Needed: A Sequential Program in Composition,” in Burton & Simmons eds., *op.cit.*, pp. 322-337.

가르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結 語

지금까지 이 글은, 첫째 현행 문교부 國語教育課程 一般目標의 分析을 통해 그것이 國語教科의 本質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국어 교육 과정의 구성 원리도 추출해 낼 수 없음을 밝혔고; 둘째 國語教育의 諸理論으로부터 國語教科의 領域과 本質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로부터 구체적인 國語教育 目標를 想定하고자 했으며; 셋째 國語教科를 言語教育 分野, 文學教育 分野, 作文教育 分野로 나누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內容選定의 基準을 模索하였고; 끝으로 位階性和 連續性を 유지할 수 있는 組織原理를 찾아 그 보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國語教育學이라는 獨立學問을 가정한다면, 이에 관한 한 필자는 소위 非專攻人이기 때문에, 이 글에 참조된 이론이나 논의된 내용이나 인용된 '보기'들이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상식화된 개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國語教育에 관한 한, 아직까지 매우 상식적인 원리나 원칙이라도 그것이 有意的으로 실천되어 온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가 꼭 확인해 두어야 할 일들을 확인해 두자는 정도의 주장에 머문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